

부산 일부지역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구강보건행태와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견해

The Research on Oral Health Behavior and Oral Health Education according to Gender of Health and Non-health Related College Students in Some Areas of Busan

김민지*, 정미애**

동서대학교 보건의료계열 치위생학과*, 강원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치위생학과**

Min-Ji Kim(icealswl@dongseo.ac.kr)*, Mi-Ae Jeong(teeth2080@kangwon.ac.kr)**

요약

본 연구는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구강보건행태와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견해를 알아 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구강보건행태 중 학교내에서 칫솔질, 전문가 구강보건교육 경험 보건계열에서 많았다. 구강보건관련 정보를 얻는 경로는 남학생은 보건계열, 비보건계열 모두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가 가장 높았고, 여학생은 보건계열에서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 비보건계열은 치과 병(의)원에서가 가장 높았으며, 구강보건교육 필요는 남학생 중 보건계열은 76.4%, 비보건계열은 48.3%, 여학생은 보건계열은 80.3%, 비보건계열은 60.4%이었다. 구강보건교육 참여는 남학생 중 보건계열은 81.9%, 비보건계열은 68.1%, 여학생 중 보건계열은 84.8%, 비보건계열은 73.3%이었다. 선호하는 구강보건교육방법은 보건계열에서 칫솔질 시행 등 체험교육, 비보건계열은 치과 의사 또는 치과위생사의 강의를 가장 높았다. 선호하는 구강보건교육 장소는 학교 내가 가장 높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대학생의 전공과 성별에 따라 적절한 구강보건교육의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여 대학교 내 구강보건교육을 통하여 구강건강에 대한 올바른 구강보건지식과 태도 및 행동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 중심어 : | 보건계열 | 비보건계열 | 성별 | 구강보건행태 | 구강보건교육 |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to find out the opinions on oral health behavior and oral health education according to gender in health and non-health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there were many girls in the health-related field and boys in the non-health-related college students. Among the oral health behaviors, brushing in school was common in both boys and girls in the health-related college students, and professional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s were also found in the health-related college students. The need for oral health education among male students was 76.4% for health-related college students, 48.3% for non-health-related college students, whereas female health-related college students showed 80.3%, and non-health-related college students were 60.4%. Participation in oral health education in order of male health-related students, male non-health-related students, female health-related students, and female non-health-related students were 81.9%, 68.1%, 84.8% and 73.3% respectively. The preferred method of oral health education was experiential education such as brushing for both male and female in the health-related college students, and lectures by dentists or dental hygienist were the highest response for non-health-related college students. The preferred location for oral health education was highest in schools.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considered necessary to develop and disseminate appropriate oral health education programs according to college students' majors and gender, and to form correct oral health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for oral health through oral health education.

■ keyword : | Health Related College | Non-health Related College | Gender | Oral Health Behavior | Oral Health Education |

* 이 논문은 2020년도 동서대학교 "Dongseo Cluster Project"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DSU-2020004)

접수일자 : 2020년 12월 24일

심사완료일 : 2021년 01월 05일

수정일자 : 2021년 01월 05일

교신처자 : 정미애, e-mail : teeth2080@kangwon.ac.kr

I. 서론

대학생은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에 접어든 시기고 성인기이지만 근로자는 아닌 학생의 신분이다[1]. 하지만, 졸업과 동시에 사회로 진출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기반인력이 되며, 그 이후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어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자녀의 구강보건관리 행태 또한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2]. 그러므로 대학생 시기에 생활적인 부분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여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강건강을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강보건관리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행태가 이루어져야 한다[3].

구강건강은 전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4-6], 치아우식증, 치주병과 같은 대부분의 구강질환들은 구강관리능력이 부족하거나 소홀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으나[7][8], 개개인이 건강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짐으로써 예방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올바른 구강보건행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태도와 신념이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구강보건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9]. 이러한 구강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 및 행동의 변화는 구강보건교육을 통하여 가능하며,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구강건강의 유지, 증진 및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습득할 수 있다[10].

지금까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러 구강보건행태와 구강보건교육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11-18]. 성인기의 초기인 대학생들은 구강보건의 인식수준이 낮고 많은 대학생들은 구강질환에 이환되어 있으며[11], 자신의 구강건강상태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12], 구강보건교육경험은 성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여학생 중 56.5%, 남학생 중 43.5%이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있었으며[13],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학생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보건계열 59.0%, 비보건계열 39.8%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있었고, 구강보건교육필요성 여부는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학생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보건계열 53.0%, 비보건계열 52.4% 필요하다고 하였다[14].

또한, 구강보건교육의 유무와 구강건강상태를 확인한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구강보건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 구강보건교육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15], 아르바이트 및 식사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수업시간과 잦은 야식과 결식, 음주와 흡연 등으로 불안정한 생활에 노출되어 있다[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구강보건사업에 대학생은 배제되어 있어[17], 대학생들을 위한 구강건강에 대한 올바른 구강보건인식과 태도 및 지식을 형성시키기 위해 구강보건교육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하였다[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부지역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구강건강행태 및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여, 대학생에게 스스로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고취와 구강관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며, 이 시기에 적절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방향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부산광역시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 4,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비확률표본추출법인 편의추출법에 의해 선정하여,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설문이 배부된 연구대상자 4,500명 가운데 무응답 항목이 많은 등 응답이 불성실하여 분석이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한 442부를 제외한 4,058부를 최종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만 18세부터 24세까지로 평균 연령은 22세로 나타났다.

2. 연구방법

2.1 설문조사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구강보건행태와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연구대상자들에게 설문지의 취지를 설명한 후 자기기입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일반적인 특성에 해당하는 성별, 연령, 학과 등을 조사하였고, 구강건강행태, 전문가

구강보건교육경험 및 구강보건관련 정보를 얻는 경로, 구강보건교육 필요와 참여 여부, 선호하는 구강보건교육방법 및 장소와 선호하는 구강보건교육내용을 조사하였으며, 설문문항은 구강보건전문가 3인에게 타당성을 검증 받았으며, 5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내용을 수정, 보완한 후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의 내용은 모든 연구대상자들에게 동일하게 진행하였으며, Cronbach's alpha는 0.675로 나타났다.

2.2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모두 전산으로 입력하였고,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 수준은 0.05로 정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하였고,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구강건강행태, 전문가 구강보건교육경험 및 구강보건관련 정보를 얻는 경로, 구강보건교육 필요와 참여 여부, 선호하는 구강보건교육방법 및 장소는 카이제곱검정법(chi-square tes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선호하는 구강보건교육내용은 다중응답하도록 하여 빈도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는 [표 1]과 같이, 전체 4,058명으로 남자는 777명(19.15%), 여자는 3,281명(80.85%)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다. 전공별로는 보건계열은 여학생이 650명(83.7%)으로 남학생 127명(16.3%)보다 많았고, 비보건계열은 남학생이 1,778명(54.2%)으로 여학생 1,503명(45.8%)보다 많았다[표 1].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전공	
		보건계열(수,%)	비보건계열(수,%)
전체		777(19.15)	3,281(80.85)
성별	남	127(16.3)	1,778(54.2)
	여	650(83.7)	1,503(45.8)

2. 연구대상자의 구강보건행태

[표 2]의 연구대상자의 구강보건행태는 학교내에서 치솔질 관련은 남학생 중 보건계열 학생은 90명(70.9%)이었고, 비보건계열 학생은 495명(27.8%)이었으며(p<0.001), 여학생 학교내에서 이닦는 보건계열 학생은 481명(74.0%)이었고, 비보건계열 학생은 534명(35.5%)이었다(p<0.001).

치솔 외 구강관리용품의 사용하는 남학생은 보건계열 59명(46.5%)이었고, 비보건계열 862명(48.5%)이었으며, 여학생은 보건계열 318명(48.9%)이었고, 비보건계열 783명(52.1%)이었다[표 2].

표 2. 연구대상자의 구강보건행태

		전공		p*
		보건계열(수,%)	비보건계열(수,%)	
남	학교 내 이닦기			< 0.001**
	예	90 (70.9)	495 (27.8)	
	아니오	37 (29.1)	1283 (72.2)	
	잠자기 전 이닦기			0.430
	예	115 (90.6)	1592 (89.5)	
	아니오	12 (9.4)	186 (10.5)	
	음주 후 이닦기			0.278
	예	93 (73.2)	1350 (75.9)	
	아니오	34 (26.8)	428 (24.1)	
	치솔 외 구강관리용품의 사용			0.364
	예	59 (46.5)	862 (48.5)	
	아니오	68 (53.5)	916 (51.5)	
여	학교 내 이닦기			< 0.001**
	예	481 (74.0)	534 (35.5)	
	아니오	169 (26.0)	969 (64.5)	
	잠자기 전 이닦기			0.314
	예	615 (94.6)	1,431 (95.2)	
	아니오	35 (5.4)	72 (4.8)	
	음주 후 이닦기			0.120
	예	568 (87.4)	1,283 (85.4)	
	아니오	82 (12.6)	220 (14.6)	
	치솔 외 구강관리용품의 사용			0.096
	예	318 (48.9)	783 (52.1)	
	아니오	332 (51.1)	720 (47.9)	

카이제곱검정법에 의한.p(0.05.p**(0.001

3. 전문가 구강보건교육 경험 및 구강보건관련 정보를 얻는 경로

[표 3]과 같이 전문가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은 남학생 중 보건계열은 77명(60.6%), 비보건계열은 1,008명(56.7%)이었으며, 여학생 중 보건계열은

489명(75.2%), 비보건계열은 937명(62/3%)이었다(p=0.001),

구강보건관련 정보를 얻는 경로는 남학생 중 보건계열은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가 44명(34.6%)로 가장 높았고, 치과 병(의)원 30명(23.6%). 인터넷 20명(15.7%) 순이었으며, 비보건계열도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가 611명(34.4%)로 가장 높았고, 치과 병(의)원 556명(31.3%). 인터넷 300명(16.9%) 순이었다.

여학생 중 보건계열은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가 189명(29.1%)로 가장 높았고, 치과 병(의)원 171명(26.3%). 인터넷 139명(21.4%) 순이었으며, 비보건계열은 치과 병(의)원이 601명(40.0%) 가장 높았고,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가 455명(30.3%), 인터넷 233명(15.5%) 순이었다(p<0.001)[표 3].

표 3. 전문가 구강보건교육 경험 및 구강보건관련 정보를 얻는 경로

	전공		p*
	보건계열 (수,%)	비보건계열 (수,%)	
남			
전문가 구강보건교육 경험			
예	77 (60.6)	1008 (56.7)	0.220
아니오	50 (39.4)	770 (43.3)	
구강보건관련 정보 얻는 경로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	44 (34.6)	611 (34.4)	0.055
보건소	2 (1.6)	55 (3.1)	
치과 병(의)원	30 (23.6)	556 (31.3)	
신문, 잡지	8 (6.3)	51 (2.9)	
가족, 친구, 이웃 등	15 (11.8)	143 (8.0)	
인터넷	20 (15.7)	300 (16.9)	
기타	8 (6.3)	62 (3.5)	
여			
전문가 구강보건교육 경험			
예	489 (75.2)	937 (62.3)	0.001**
아니오	161 (24.8)	566 (37.7)	
구강보건관련 정보 얻는 경로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	189 (29.1)	455 (30.3)	< 0.001**
보건소	12 (1.8)	51 (3.4)	
치과 병(의)원	171 (26.3)	601 (40.0)	
신문, 잡지	22 (3.4)	35 (2.3)	
가족, 친구, 이웃 등	42 (6.5)	80 (5.3)	
인터넷	139 (21.4)	233 (15.5)	
기타	75 (11.5)	48 (3.2)	

카이제곱검정법에 의한, p(<0.05, p**(<0.001

4. 구강보건교육 필요와 참여 여부

구강보건교육 필요 여부는 남학생 중 보건계열은 필요하다 97명(76.4%), 아니오 16명(12.6%). 모르겠다

14명(11.0%) 이었으며, 비보건계열은 필요하다 859명(48.3%), 아니오 598명(33.6%). 모르겠다 321명(18.1%)이었고(p<0.001), 여학생 중 보건계열은 필요하다 522명(80.3%), 아니오 76명(11.7%). 모르겠다 52명(8.0%)이었으며, 비보건계열은 필요하다 908명(60.4%), 아니오 282명(18.8%). 모르겠다 313명(20.8%)이었다(p<0.001).

구강보건교육진행시 참여 여부는 남학생 중 보건계열은 꼭 참여하겠다 8명(6.3%), 가능한 참여하겠다 96명(75.6%). 모르겠다 23명(18.1%)이었으며, 비보건계열은 꼭 참여하겠다 136명(7.6%), 참여하겠다 1,075명(60.5%). 모르겠다 567명(31.9%)이었고(p=0.003), 여학생 중 보건계열은 꼭 참여하겠다 37명(5.7%), 가능한 참여하겠다 514명(79.1%). 모르겠다 99명(15.2%)이었으며, 비보건계열은 꼭 참여하겠다 68명(4.5%), 가능한 참여하겠다 1,034명(68.8%). 모르겠다 401명(26.7%)이었다(p<0.001)[표 4].

표 4. 구강보건교육 필요와 참여 여부

	전공		p*
	보건계열 (수,%)	비보건계열 (수,%)	
남			
구강보건교육필요여부			
예	97 (76.4)	859 (48.3)	< 0.001**
아니오	16 (12.6)	598 (33.6)	
모르겠음	14 (11.0)	321 (18.1)	
구강보건교육진행 시 참여여부			
꼭 참여하겠다	8 (6.3)	136 (7.6)	0.003**
가능한 참여하겠다	96 (75.6)	1,075 (60.5)	
모르겠음	23 (18.1)	567 (31.9)	
여			
구강보건교육필요여부			
예	522 (80.3)	908 (60.4)	< 0.001**
아니오	76 (11.7)	282 (18.8)	
모르겠음	52 (8.0)	313 (20.8)	
구강보건교육진행 시 참여여부			
꼭 참여하겠다	37 (5.7)	68 (4.5)	< 0.001**
가능한 참여하겠다	514 (79.1)	1,034 (68.8)	
모르겠음	99 (15.2)	401 (26.7)	

카이제곱검정법에 의한, p(<0.05, p**(<0.001

5. 선호하는 구강보건교육방법 및 교육 장소

선호하는 구강보건교육방법은 남학생 중 보건계열은 칫솔질 시행 등 체험교육이 44명(34.6%)로 가장 높았

고, 치과의사 또는 치과위생사의 강의 43명(33.9%), 온라인(동영상) 매체 20명(15.7%) 순이었으며, 비보건계열은 치과의사 또는 치과위생사의 강의 710명(39.9%)로 가장 높았고, 칫솔질 시행 등 체험교육이 452명(25.4%), 온라인(동영상) 매체 371명(20.9%)순이었다($p < 0.001$). 여학생은 보건계열에서 칫솔질 시행 등 체험교육이 305명(46.9%)로 가장 높았고, 치과의사 또는 치과위생사의 강의 183명(28.2%), 온라인(동영상) 매체 107명(16.5%) 순이었으며, 비보건계열은 치과의사 또는 치과위생사의 강의 517명(34.4%)로 가장 높았고, 칫솔질 시행 등 체험교육이 493명(32.8%), 온라인(동영상) 매체 301명(20.0%)순이었다($p < 0.001$).

선호하는 구강보건교육 장소는 남학생 중 보건계열은 학교내가 104명(81.9%)로 가장 높았고, 치과 병(의)원이 12명(9.4%), 보건소가 11명(8.7%) 순이었으며, 비보건계열도 학교내가 1,099명(61.8%)로 가장 높았고, 치과 병(의)원 449명(25.3%), 보건소 230명(12.9%)순이었다. 여학생 중 보건계열은 학교내가 477명(73.4%)로 가장 높았고, 치과 병(의)원이 119명(18.3%), 보건소가 54명(8.3%) 순이었으며, 비보건계열도 학교내가 966명(64.3%)로 가장 높았고, 치과 병(의)원 346명(23.0%), 보건소 191명(12.7%)순이었다($p < 0.001$)[표 5].

표 5. 선호하는 구강보건교육방법 및 장소

	전공		p*
	보건계열 (수,%)	비보건계열 (수,%)	
남			
선호하는 구강보건교육방법			
치과의사 또는 치과위생사의 강의	43 (33.9)	710 (39.9)	< 0.001**
온라인(동영상) 매체	20 (15.7)	371 (20.9)	
칫솔질 시행 등 체험 교육	44 (34.6)	452 (25.4)	
홍보책자	13 (10.2)	176 (9.9)	
포스터나 게시판	7 (5.5)	69 (3.9)	
선호하는 구강보건교육장소			
학교내	104 (81.9)	1,099 (61.8)	< 0.001**
치과 병(의)원	12 (9.4)	449 (25.3)	
보건소	11 (8.7)	230 (12.9)	
여			
선호하는 구강보건교육방법			
치과의사 또는 치과위생사의 강의	183 (28.2)	517 (34.4)	< 0.001**
온라인(동영상) 매체	107 (16.5)	301 (20.0)	
칫솔질 시행 등 체험 교육	305 (46.9)	493 (32.8)	
홍보책자	46 (7.1)	138 (9.2)	

포스터나 게시판	9 (1.4)	54 (3.6)	
선호하는 구강보건교육장소			
학교내	477 (73.4)	966 (64.3)	< 0.001**
치과 병(의)원	119 (18.3)	346 (23.0)	
보건소	54 (8.3)	191 (12.7)	

카이제곱검정법에 의함.p < 0.05.p** < 0.001

6. 선호하는 구강보건교육내용

선호하는 구강보건교육방법은 남학생 중 보건계열은 교정 및 미백이 101명(80.3%)로 가장 높았고, 포괄적인 치과상식이 99명(78.0%), 치주병 예방 및 치료법 91명(71.7%) 순이었으며, 비보건계열은 교정 및 미백이 1,484명(83.5%)로 가장 높았고, 포괄적인 치과상식이 1,453명(81.7%), 구강위생관리법 1,329명(74.7%) 순이었다.

여학생은 보건계열에서 교정 및 미백이 496명(76.3%)로 가장 높았고, 포괄적인 치과상식이 449명(69.1%), 치주병 예방 및 치료법 447명(68.8%) 순이었으며, 비보건계열은 포괄적인 치과상식이 1,204명(80.1%)로 가장 높았고, 교정 및 미백이 1,125명(74.9%), 치주병 예방 및 치료법 1,072명(71.3%) 순이었다[표 6].

표 6. 선호하는 구강보건교육내용

	전공	
	보건계열(수,%)	비보건계열(수,%)
전체	1905 (100.0)	2153 (100.0)
남		
치아우식증 예방 및 치료법	63 (49.6)	1,132 (63.7)
치주병 예방 및 치료법	91 (71.7)	1,299 (73.1)
구취 예방 및 치료법	65 (51.2)	1,144 (64.3)
포괄적인 치과 상식	99 (78.0)	1,453 (81.7)
교정 및 미백	101 (80.3)	1,484 (83.5)
구강위생관리법	85 (66.9)	1,329 (74.7)
여		
치아우식증 예방 및 치료법	238 (36.6)	772 (51.4)
치주병 예방 및 치료법	447 (68.8)	1,072 (71.3)
구취 예방 및 치료법	355 (54.6)	891 (59.3)
포괄적인 치과 상식	449 (69.1)	1,204 (80.1)
교정 및 미백	496 (76.3)	1,125 (74.9)
구강위생관리법	389 (59.8)	1,050 (69.9)

카이제곱검정법에 의함.p < 0.05.p** < 0.001

IV. 고찰

대학생의 구강건강은 학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건

강한 신체와 심리적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며[2], 대학생 시기 바람직한 구강관리 습관 형성을 통해, 중년 이후의 구강건강을 좌우한다는 인식과 스스로의 구강건강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해주어야 한다[19].

효율적으로 구강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생까지 구강보건인식을 조사하여 구강보건 지식 정도에 따라 구강보건교육프로그램을 수립 및 수행함으로써 구강보건인식 개선과 증진 및 유지해야 하며[20],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전신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한 구강건강의 유지, 증진 및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10].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대학생들을 위한 정기적인 구강보건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구강보건정책은 현재 없는 실정이며[18],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일부 지역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구강건강행태 및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려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서는 전체적으로 남자는 777명(19.15%), 여자는 3,281명(80.85%)이었고, 보건계열에서 여학생이 650명(83.7%)으로 남학생 127명(16.3%)이었다. 보건계열이 비보건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김 등의[21]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건계열에 중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등에 여성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구강보건행태 중 칫솔질 관련은 남학생 중 학교내에서 이닦는 보건계열 학생은 90명(70.9%)이었고, 비보건계열 학생은 495명(27.8%)이었으며($p<0.001$), 여학생 중 학교내에서 이닦는 보건계열 학생은 481명(74.0%)이었고, 비보건계열 학생은 534명(35.5%)이었다($p<0.001$). 김 등[21]은 칫솔질 횟수에서 보건계열에서 3회는, 비보건계열에서는 2회 이하로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학생들의 칫솔질 시기와 횟수는 차이를 있음을 확인하였고, 아침식사 전, 점심식사 후, 잠자기 전 등의 칫솔질 시기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칫솔 외 구강관리용품의 사용하는 남학생은 보건계열 59명(46.5%)이었고, 비보건계열 862명(48.5%)이었으며, 여

학생은 보건계열 318명(48.9%)이었고, 비보건계열 783명(52.1%)이었다. 선행연구에서도[21] 전공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주로 사용하는 구강관리용품의 종류에 대해서는 보건계열이 치실이 57.7%, 비보건계열은 가글이 43.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하였다. 칫솔질과 구강관리용품을 사용하는 등의 구강건강증진행위는 구강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한 행동으로서 구강내 질병이 발생되기 전의 건강한 구강상태를 계속하여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다[22]. 즉, 이러한 행위는 구강병의 증상 및 증후가 발생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바람직한 구강건강증진행위를 습관화하면 구강건강 향상과 건강한 삶의 반이 될 수 있으므로[23] 꾸준한 노력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전문가 구강보건교육 경험은 남학생 중 보건계열은 77명(60.6%)이었고, 비보건계열은 1,008명(56.7%)이었으며, 여학생 중 보건계열은 489명(75.2%), 비보건계열은 937명(62.3%) 있다고 응답하였다($p=0.001$).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경험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28.1%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24], 김 등[14]의 연구에서는 보건계열 59.0%, 비보건계열 39.8%($p<0.001$), 정[25]의 연구에서는 보건계열 74.0%, 비보건계열 61.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32$). 이는 전공 공부의 특성상 보건계열 학생들이 비보건계열 학생들 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고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구강보건관련 정보를 얻는 경로는 남학생은 보건계열, 비보건계열 모두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가 가장 높았고, 치과 병(의)원, 인터넷 순이었으며, 여학생은 보건계열에서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 치과 병(의)원, 인터넷 순 이었고, 비보건계열은 치과 병(의)원,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 인터넷 순 이었다($p<0.001$). 선행연구 중 1989년[26]에서는 치과병(의)원에서의 구강보건교육을 통하여, 2000년대[27]에서는 TV 등 대중매체나 인터넷을 통하여 구강보건관련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하였다. 송[27]과 같이 여전히 구강보건관련 정보는 TV 등의 대중매체와 인터넷에서 많이 얻지만, 치과병(의)원에서의 전문가의 구강보건교육을 통하여도 구강

보건관련 정보를 얻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강보건교육 필요 여부는 '필요하다'가 남학생 중 보건계열은 76.4%, 비보건계열은 48.3% 이었고 ($p < 0.001$), 여학생은 보건계열은 80.3%, 비보건계열은 60.4%이었다($p < 0.001$). 선행연구에서의 구강보건교육 필요여부에 대한 결과는 정[25]은 보건계열 67.9%, 비보건계열 64.7%, 김 등[14]은 보건계열 53.0%, 비보건계열 52.4%가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p < 0.001$). 이는 대학생 시기가 사회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 하기 전 구강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구강보건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료되어 진다.

구강보건교육진행시 참여 여부는 '가능한 참여하겠다'가 남학생 중 보건계열은 81.9%, 비보건계열은 68.1%이었다($p = 0.003$), 여학생 중 보건계열은 84.8%, 비보건계열은 73.3%이었다($p < 0.001$). 구강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각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예방법을 교육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28]. 대학생은 구강보건교육에 참여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습득한 구강보건지식을 바탕으로 구강건강관리태도를 개선하고, 행동을 양성[29]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선호하는 구강보건교육방법은 보건계열에서 칫솔질 시행 등 체험교육이 남학생은 34.6%, 여학생은 46.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치과 의사 또는 치과위생사의 강의, 온라인(동영상) 매체 순이었으며, 비보건계열은 치과 의사 또는 치과위생사의 강의를 남학생은 39.9%, 여학생은 28.2%로 가장 높았고, 칫솔질 시행 등 체험교육, 온라인(동영상) 매체 순이었다($p < 0.001$). 이는 김 등의[21] 결과와 반대하는 것으로,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는 교육의 방법이 다양화 되고 있어, 보건계열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경험하는 체험교육을 선호하는 듯 하였고, 비보건계열 학생들은 전문가를 통하여 지식이 전달되어 정보가 주입되어지는 강의식 교육을 선호하는 듯 하였다.

선호하는 구강보건교육 장소는 학교 내가 남학생에서는 보건계열 81.9%, 비보건계열은 61.8%, 여학생은 보건계열 73.4%, 비보건계열은 64.3%로 가장 높았고,

치과 병(의)원, 보건소 순이었다($p < 0.001$). 모든 집단에서 학교내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아, 학생들에게 구강보건교육을 대학교의 특강이나 교양 수업 등의 시간을 활용하여 진행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에게 구강보건정보를 전달하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선호하는 구강보건교육 내용은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남학생 모두 교정 및 미백, 포괄적인 치과상식이 순이었고, 여학생은 보건계열에서 교정 및 미백, 포괄적인 치과상식 순이었으며, 비보건계열은 포괄적인 치과상식이 가장 높았고, 교정 및 미백이 순이었다. 김 등[14]의 선행 연구에서는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모두 구강위생관리법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고, 그 다음이 치주조직병 예방 및 치료법을 원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강보건교육 내용에 교정 및 미백을 선호하는 것은 요즈음의 대학생들은 아름답게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일을 취업과 연애 등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30]이라고 한다는 점과 같은 맥락이라 생각되어 진다.

우리나라의 대학생은 자율성과 성인이라는 명목으로 학교구강보건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었다[31]. 미국에서는 독립된 인구집단으로 대학생들을 분류하여 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한 건강관리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대학교는 대학생과 교직원 등의 건강을 증진하는 생활터로서의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32]. 일본에서는 대학생들의 치과지식, 구강보건교육, 구강건강행태들의 연관성을 조사하였으며[33], 구강보건교육프로그램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34].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비확률 편의 표본추출법을 통하여 일부 지역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많을 것이며, 단면조사가 가지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구강보건행태와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견해를 확인함으로써 전공과 성별에 따라 적절한 구강보건교육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겠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부지역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구강건강행태 및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기 위하여, 4,058부를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연구대상자들에게 설문지의 취지를 설명한 후 자기기입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전공별로는 보건계열은 여학생이 650명(83.7%)으로 남학생 127명(16.3%)보다 많았고, 비보건계열은 남학생이 1,778명(54.2%)으로 여학생 1,503명(45.8%)보다 많았다.

2. 구강보건행태 중 학교내에서 이닦기는 남학생 중 학교내에서 이닦는 보건계열 학생은 90명(70.9%)이었고, 비보건계열 학생은 495명(27.8%)이었으며 ($p<0.001$), 여학생 중 학교내에서 이닦는 보건계열 학생은 481명(74.0%)이었고, 비보건계열 학생은 534명(35.5%)이었다($p<0.001$).

3. 전문가 구강보건교육 경험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보건계열이 많았고($p=0.001$), 구강보건관련 정보를 얻는 경로는 남학생은 보건계열, 비보건계열 모두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가 가장 높았고, 여학생은 보건계열에서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 비보건계열은 치과 병(의)원,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 인터넷 순이었다 ($p<0.001$).

4. 구강보건교육 필요 여부는 '필요하다'가 남학생 중 보건계열은 76.4%, 비보건계열은 48.3% 이었고 ($p<0.001$), 여학생은 보건계열은 80.3%, 비보건계열은 60.4%이었다($p<0.001$). 구강보건교육진행시 참여 여부는 '가능한 참여하겠다'가 남학생 중 보건계열은 81.9%, 비보건계열은 68.1%이었고($p=0.003$), 여학생 중 보건계열은 84.8%, 비보건계열은 73.3%이었다 ($p<0.001$).

5. 선호하는 구강보건교육방법은 보건계열 칫솔질 시행 등 체험교육이 남학생은 34.6%, 여학생은 46.9%로 가장 높았고, 비보건계열은 치과 의사 또는 치과위생사의 강의를 남학생은 39.9%, 여학생은 28.2%로 가장 높았고, 칫솔질 시행 등 체험교육, 온라인(동영상) 매체 순이었다($p<0.001$).

6. 선호하는 구강보건교육 장소는 학교 내가 남학생에서는 보건계열 81.9%, 비보건계열은 61.8%, 여학생

은 보건계열 73.4%, 비보건계열은 64.3%로 가장 높았고, 치과 병(의)원, 보건소 순이었다($p<0.001$).

7. 선호하는 구강보건교육방법은 남학생은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모두 교정 및 미백, 포괄적인 치과상식이 순이었고, 여학생은 보건계열에서 교정 및 미백, 포괄적인 치과상식 순이었으며, 비보건계열은 포괄적인 치과상식이 가장 높았고, 교정 및 미백이 순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대학생의 전공과 성별에 따라 적절한 구강보건교육의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여 구강보건교육을 통하여 구강건강에 대한 올바른 구강보건지식과 태도 및 행동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참 고 문 헌

- [1] 박홍련, 문선정, "일부 대학생의 구강건강지식도 및 예방행태에 관한조사," 제9권, 제5호, pp.485-490, 2009.
- [2] 이경희, 김수경, "대학생들의 구강보건인식과 행위 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한국치위생학회지, 제13권, 제5호, pp.845-853, 2013.
- [3] 김연화, "울산시 학교구강보건실 운영학교와 비운영학교 학생의 구강보건지식 및 행동 비교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호, pp.361-368, 2012.
- [4] 최연희, "CART 알고리즘을 이용한 구강건강과 전신건강과의 관련성," 대한구강보건학회지, 제28권, 제2호, pp.177-188, 2004.
- [5] 차은숙, 손기영, 윤재문, 정원주, 조비룡, 진보형, "동맥경화증과 치주질환, 전신건강 및 구강건강지표간의 관련성: 예비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제41권, 제4호, pp.274-281, 2017.
- [6] 김철신, 신보미, 배수명, "한국 노인의 구강건강수준에 따른 영양섭취 상태 - 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한국치위생학회, 제11권, 제6호, pp.833-841, 2011.
- [7] 한경순, 최준선, 홍해경, 이명주, 배광학, "대상자 특성에 따른 전문가치면세정술 및 세균막관리교육의 효과," 대한구강보건학회지, 제32권, 제4호, pp.453-463, 2008.
- [8] 임순환, 황지민, "구강건강관리행위에 따른 치면세균

- 막지수와의 관련성,” 한국치위생과학회, 제15권, 제2호, pp.159-165, 2015.
- [9] 이재승, 이홍수, “일부 수도권 대학생의 구강보건행태와 그 연관요인,” 대한구강보건학회지, 제28권, 제3호, pp.331-346, 2004.
- [10] 김인숙, 오정숙, 이은숙, 박정순, 김선숙, 김은숙, 정순희, 심수연, 김연화, 박일순, *구강보건교육학*, 고문사, 2005.
- [11]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제3차년도 원시자료 분석 결과*, 질병관리본부, 2013.
- [12] 원상연, 신승철, 김선영, “대학신입생들의 구강상태 인식도와 상대구강진료필요도에 관한 상관관계 조사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제21권, 제3호, pp.491-503, 1997.
- [13] 신해은, 조민정, 박의정, 최연희, 송근배, “일부 대학생의 구강보건교육 경험 실태 및 구강환경관리능력 지수 영향요인 조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제43권, 제1호, pp.21-25, 2019.
- [14] 김영임, 허희영, “보건계열 대학생 및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구강건강경험과 구강보건교육요구도 비교 연구,” 대한치과위생학회지, 제10권, 제1호, pp.19-27, 2008.
- [15] H. Y. Kim, D. I. Chun, and Y. S. Kwak, “Factors that cause influence on the knowledge of oral health of university students,” *Biomedical Research*, Vol.28, No.12, pp.5565-5571, 2017.
- [16] 민성희, 오혜숙, “원주 지역 일부 대학생의 식생활 태도 조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제16권, 제3호, pp.214-224, 2001.
- [17] 임미영, *한국 대학생의 건강증진 행위 예측 모형 구축*,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18] 이선미, 하정은, 김민지, “보건계열과 비보건 계열 대학생의 학교 내 구강건강관리행태 비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2호, pp.696-702, 2016.
- [19] 노형록, 오한나, “일부지역 대학생들의 구강보건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2권, 제8호, pp.431-438, 2014.
- [20] 장정유, “대학생들의 음주와 구강보건인식 간의 관계,” *알코올과 건강행동연구* 제19권, 제2호, pp.69-77, 2018.
- [21] 김민아, 장현정, 이연경, “대학생의 전공계열이 치과 진료에 미치는 융합적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0권, 제1호, pp.87-94, 2019.
- [22] 이홍수, 김기순, “전라북도 일부지역 경제활동 여성의 구강보건행태에 관한 연구 : 구강병예방행위에 관한 조사분석,” 대한구강보건학회지, 제23권, 제3호, pp.287-299, 1999.
- [23] 정은주, “전남 지역 일부 대학생의 구강건강증진행위와 관련요인,” 한국치위생학회지, 제18권, 제1호, pp.103-113, 2018.
- [24] 김설희, 구인영, 허희영, 박인숙, “일부 여자고등학생의 구강보건경험과 구강보건교육 인지도 조사,” 제7권, 제2호, pp.105-113, 2007.
- [25] 정연화,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 간의 구강보건 지식, 태도, 행동*,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26] P. Lang, M. Woolfolk, and B. Faja, “Oral health knowledge and attitude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Michigan,” *Journal of Public Health Dentistry*, Vol.49, No.1, pp.44-50, 1989.
- [27] 송설경, *일부 대학생의 구강보건인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성별 및 전공계열 비교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28] 조미영, *지역사회 고등학생들의 구강보건실태 및 행동에 관한 조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29] 김재도, “구강보건관련 전공그룹과 비전공그룹간의 구강보건 인식도 및 관리 실태에 대한 비교연구,” *대구산업정보대학 논문집*, 제17권, pp.327-340, 1993.
- [30] 최하나, 배현숙, 조영식, “일부 대학생의 구취자각에 따른 건강상태 및 건강행동,” 치위생과학회지, 제12권, 제4호, pp.443-450, 2012.
- [31] 임미영, *한국 대학생의 건강증진 행위 예측 모형 구축*,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32] 김영복, “대학생의 건강특성 및 대학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 접근방안,”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제28권, 제5호, pp.1-16, 2011.
- [33] T. T. Ayano, E. Daisuke, M. Shinsuke, Y. T. Mayu, K. Kota, A. Tetsuji, T. Takaaki, I. Yoshiaki, and M. Manabu, “Associations between dental knowledge, source of dental knowledge and oral health behavior in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A cross-sectional study,” *PLoS One*, Vol.12, No.6, p.e0179298, 2017.
- [34] A. A. E. Shokry, M. R. Adel, and A. E. A.

Rashad, "Educational program to improve quality of life among elderly regarding oral health," Future Dental Journal of Egypt, Vol.4, No.2, pp.211-215, 2018.

저 자 소 개

김민지(Min-Ji Kim)

중신회원



- 2011년 2월 : 부산대학교 치의학 석사
- 2013년 8월 : 부산대학교 치의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동서대학교 치위생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임상치위생학, 공중구강보건학 등

정미애(Mi-Ae Jeong)

중신회원



- 1999년 8월 : 단국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석사
- 2008년 2월 : 한양대학교 보건학과 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강원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관심분야〉 : 임상치위생학, 구강보건학 등